



지난 동계체전에서 금 3개, 동 2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화순초 스키부는 전국 정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롤러스키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술습을 즐기고 있다.

스키 대신 롤러스키 '쿨러닝' "8년 뒤엔 올림픽 금 딸거예요"

스포츠 포커스

화순초 스키부

지난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불꽃무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민을 감동시킨 환희의 순간들. 한국 스포츠사에 남을 명장면들을 유독 가슴 속 깊이 새겨둔 어린 선수들이 있다. 바로 화순초(교장 김경중) 스키부이다.

"열심히 스키 타서 우리도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해 모태범 선수처럼 태극기를 들고, 춤도 추고 싶어요."

봄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린 지난 8일 화순초 운동장에 오후 훈련을 앞두고 가볍게 몸을 풀던 선수들이 지난 올림픽을 보고 느낀 소감과 함께 자신들의 꿈을 얘기했다. 스키 스틱을 양손에 꼭 쥐고 채 해맑은 표정으로 밝힌 이들의 포부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닌 멀지않은 미래에 또 한번의 감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전남,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순초 스키부가 있어 가능한 얘기이다. 지난 동계체전에서 이들의 활약을 보면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초등부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 화순중으로 진학한 배민주의 3관왕 집주와 남녀 단체 계주의 동반 3위를 기록하면서 초등부 전국 정상권에 우뚝 선 것이다.

화순초의 정상 집주는 이재양 감독의 '즐거는 운동' 지도와 선수들의 자발적인 훈련, 그리고 학교·학부모·협회·군청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하나된 '합작품'이었다.

이 감독은 "어린 선수들이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재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면서 "흥미를 가질 때까지 '잘한다'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터득한 지도법을 밝혔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훈련 내내 밝고 신나는 듯한 표정을 이었다. 어려운 훈련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자 화순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전남 스키협회의 지원을 받아 운동을 시작한 스키부는 2007년 정식팀으로 창단했다. 창단 첫 해 동계체전에서 금



앞줄 왼쪽부터 이재양 감독·변세중·김성관·정현주·최명진·박수아 선수·임석문 코치, 뒷줄 왼쪽부터 정동민·이수미·조기람 선수.

여름엔 육상선수 겨울엔 스키선수 포장도로 이용 기술훈련·활강 연습 동계체전서 금3·동2 '맨 땅의 기적'

1개, 은 3개, 동 3개를 기록하자 체육계가 깜짝 놀라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훈련 장소는 물론 장비도 넉넉치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이 이처럼 뛰어난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모두 기적같은 일로 놀라워했다.

하지만 결코 기적이 아닌 준비된 '금메달'이 있었다.

스키 대신 롤러스키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눈 쌓인 스키장이 아닌 맨 땅에서 일컫는 어린 선수들의 값진 땀의 결실이었다. 바로 국내판 '쿨러닝'이었다.

창단 초만해도 '할 수 있을까'하는 의혹의 시선을 던졌던 관계자들이 이젠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게 된 것이다.

화순초 스키부원들은 운동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도 우수한 말 그대로 '인재'들이다. 방과 후 훈련으로 수업결손이 없고 이 감독

의 추가 학습지도로 공부에도 전혀 소홀함이 없다. 이들의 성적은 결코 남들에게 뒤지 않을 상위권을 유지해 학부모들의 신뢰 또한 두텁고 서로 운동부에 들어오고 싶어 할 정도이다.

새학기를 맞아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한 스키부는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동안 체력 훈련에 집중한다. 지구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키우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매일 빠짐 없이 실시하고 있다. 사실 기량이 한 수 위인 경기·전북·강원도 선수들을 제치고 나설 수 있는 열쇠는 체력이다.

탄탄한 체력을 앞세운 이들의 질주에 스키기술이 뛰어난 타시도 선수들도 결국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후엔 롤러스키를 신고 포장되어진 운동장 주위를 계속 돌면서 기술훈련을 갖는다. 또 대회를 앞두고는 전남대화순병원 옆 도로에서 활강연습도 실시하곤 한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화순초 스키부는 대부분 승부근성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들 중 이수미(6년)는 타고난 체력으로 지난 동계체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조기람(5년)도 근력이 뛰어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정현주(4년)는 스피드와 지구력 모두 좋아 앞으로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주이다. 남자선수들 중에는 변세중과 정동민(이상 5년)이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팀 정상질주에 앞장 서겠다는 기세이다.

화순초스키부의 또다른 특징은 이들이 모두 육상부이다는 것. 다가오는 소년체전을 대비해 당분간 롤러스키를 벗고 이전 운동장을 질주하게 된다.

김경중 교장은 "어린 선수들이 힘든 훈련도 물러가지 않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들이 학교의 명예를 위해 땀을 흘리는 만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1시간의 오후 훈련을 마친 스키부원들은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면서 언젠가 올림픽 무대에 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듯 마냥 자신있는 표정들이었다. 이들의 꿈이 반드시 이뤄져 벅찬 감동의 주인공이 되길.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T.081-5688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광등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기/오피스/유흥가능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순간 5·18로 광로변)
5.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6. 10층 신축건물 옆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용업소)

새만금-연산-고시포-적포-신동-모양 해수욕장까지의 부지 빌트업성

▶ **펜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대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일대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움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동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클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항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저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배포, 현판, 간판, 계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중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막걸리, 약주, 증류주, 과일주, 리큐르, 기타주 (창업도 가능함)

● 모집기간
조선대학교: 3월 3일까지 접수
호남대학교: 3월 5일까지 접수

● 수업기간(4개월 15주)
조선대학교: 3월 8일 ~ 6월 말
호남대학교: 3월 10일 ~ 6월 말

문의전화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230-7700~3
☎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370-8211~3
☎ 강사 ☎ 010-4568-0700